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여름 방학 동안 여러 미술관을 방문하고 왔는데요, 인상적인 작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 순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 1을 가리키며) 이 작품을 아세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맞아요. 우리가 지난번 미술 시간에 배웠던 칸딘스키 작품이지요. 칸딘스키는 대상의 구체적인 형상에 내재한 본질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즉 칸딘스키는 실재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형상을 화폭에 재현하지 않았습니니다. 대신에 그는 단순한 선과 면, 그리고 색의 덩어리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저는 칸딘스키의 그림이 음악을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면 2를 가리키며) 이 사진 속 작품은 철을 소재로 회전하는 모양의 타원을 표현한 리처드 세라의 설치 작품입니다. 우리가 미술관이나 전시회에 가보면 예술 작품을 그저 바라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다른 작품에서와 달리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자의 위치에 따라 작품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사진 속 사람들처럼 작품 안에 들어가서 작품을 만져 보기도 하고, 다양한 위치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는 세라의 창작 의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세라는 작품의 완성은 관람자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라는 이 작품을 창작할 때 작품에 참여하는 관람자의 위치나 시선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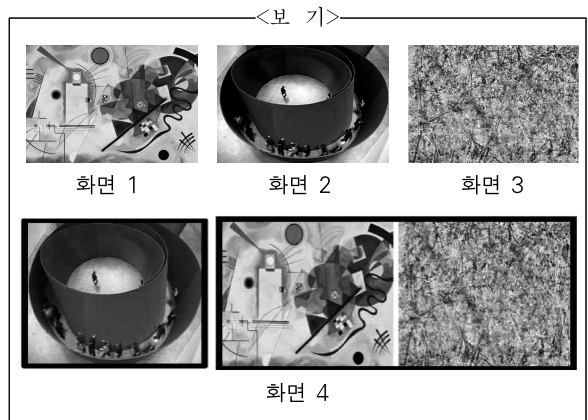
마지막은 드립 페인팅 기법을 활용한 잭슨 폴록의 작품입니다. (화면 3을 가리키며) 그는 커다란 천을 바다에 깔고 공업용 페인트를 흘뿌려 이 작품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구멍 낸 물감통을 흔들거나, 주사기로 물감을 쓰는 방식을 사용하여 선과 색의 구별마저 없애 버렸습니다. 폴록은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생각과 감정을 우연적인 방식으로 작품에 담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의 작업 과정이 사진으로 기록됨으로써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의 작업 과정까지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한 세 작품을 (화면 4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세라의 작품을 칸딘스키와 폴록의 작품과 구분하여 제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관람자에 대한 세라의 생각을 떠올리시면 좀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 있으셨나요? 저도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작품에 참여하는 관람자의 역할이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작품과 관람자’란 주제로 발표해 보려 합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학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언어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청중을 칭찬하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며 청중과의 유대감을 쌓고 있다.
- ③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④ 공유하는 경험을 환기하여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 ⑤ 발표 내용을 요약한 후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2. <보기>는 위 발표에서 사용했던 매체 자료이다. 이 시각 자료를 보며 발표를 들은 학생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작품의 규모에 따라 화면 1, 2, 3을 보여준 후, 작품에 사용된 표현 기법이 대비되도록 화면 4를 준비했군.
- ② 발표자에게 인상적이었던 순서로 화면 1, 2, 3을 보여준 후, 작품의 소재가 대비되도록 화면 4를 준비했군.
- ③ 발표자가 관람한 시간적 순서로 화면 1, 2, 3을 보여준 후, 예술가의 활동 시대가 대비되도록 화면 4를 준비했군.
- ④ 작품의 인기 순서로 화면 1, 2, 3을 보여준 후, 각각의 예술가에 대한 당대의 평가가 대비되도록 화면 4를 준비했군.
- ⑤ 발표자의 선호도에 따라 화면 1, 2, 3을 보여준 후, 관람자의 참여에 대한 작가의 고려 여부가 대비되도록 화면 4를 준비했군.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칸딘스키 그림이 음악을 닮았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
 - 칸딘스키에 대해 궁금해했어. 발표자가 칸딘스키에 대해 참고한 자료는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어.
 - 세라의 작품이 타원을 표현한 것이라는데, ‘수학과 예술’에 관한 과제 발표에 활용해야겠어.
 - 폴록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작품보다 작업하는 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더 많이 보여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발표 내용을 듣고 나니 그 이유를 알겠어.
 - 나도 발표를 듣고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했어. 다음 발표도 기대되는군.

- ① 발표자의 언어 예절에 대해 평가하며 들었다.
- ② 발표자가 계획한 발표 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들었다.
- ③ 발표 내용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의문을 해결하며 들었다.
- ④ 발표 내용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며 들었다.
- ⑤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것을 자신의 과제 해결에 활용할 생각을 하며 들었다.

[4~7] (가)는 학교에 게시할 안내문을 작성하기 위한 학생회 학생들의 회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잘 알다시피,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둠별 활동이나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모둠 학습실을 만들어 우리 학생회가 운영하고 있잖아. 그런데 모둠 학습실을 이용하는 데 문제점들이 꽤 많은 것 같아. 이 점에 대해 의견들을 말해 보면 좋겠어.

학생 2 : 모둠 학습실은 모둠별 활동과 발표를 준비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아. 그런데 방이 세 개밖에 없어서 사용 중인 팀이 있으면 그 팀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지난 주에 수행평가 모둠별 활동 때문에 나도 여러 번 갔는데 먼저 사용 중인 팀들이 나오지 않아서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했어.

학생 3 : 아마 사용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 모둠 학습실을 한 번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좋겠어. 2시간 정도로 제한하여 예약제로 운영하면 어떨까?

학생 1 :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체계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회 총무부가 한 달 전부터 예약을 받고 정해진 시간만 이용하도록 하면 좋겠어.

학생 3 : 그래. 너희들은 다른 문제는 없었니? 난 지난번에 가 봤더니 빔 프로젝터가 작동하지 않더라. 자기 물건이 아니라고 함부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모둠 학습실을 이용할 때 책임을 맡을 사람을 정하면 좋겠어. 예약제를 하기로 했으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예약하는 사람이 고장난 기자재를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회에 알리도록 하면 어떨까?

학생 1 :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내가 이용했을 때는 음식물 냄새가 심하게 나서 불쾌했는데, 너희들은 어땠니?

학생 2 : 내가 모둠 학습실을 사용할 때는 괜찮았는데, 지난 주에 이용한 우리 반 친구는 모둠 학습실이 지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다는 말을 했어. 청소도 문제인 것 같아.

학생 1 : 맞아. ㉠ 음식물로 모둠 학습실이 지저분해지니까, 물을 제외한 음식물 반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학생 3 : 좋아. 이제 학생들에게 공지할 안내문을 써야할 텐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그동안의 이용 상황에 대해서 언급해야 할 것 같아. 도저히 지금 상태로는 모둠 학습실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 같아.

학생 2 : 그전에 모둠 학습실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많은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고, 어렵게 만들어진 장소라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

학생 1 : 지금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먼저 모둠 학습실을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을 언급하고, 학생들이 모둠 학습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자. 그 다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규칙을 안내하면 될 것 같아.

학생 2 : 좋아. 근데 ㉡ 모둠 학습실 청소를 맡은 도서관 친구들이 힘들면, 모둠 학습실을 이용하는 팀이 청소를 하면 어떨까? 제대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같은 학교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잖아. 그 문제와 대책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학생 3 : 맞아. 모둠 학습실 운영 규칙에 대한 제안을 더 받는 건 어때? 다른 학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우리가 듣고 규칙을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하면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학생 1 : 좋은 생각이야. 마지막에는 학생들에게 동참을 권유하는 어투를 사용하면 더 좋겠어. 글이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자.

학생 2 : 지금까지의 모습이 좋지 않았으니까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학생 1 :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글을 같이 써 보자.

(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 학생회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모둠별 활동을 하거나, 발표 준비를 할 수 있는 모듬 학습실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요구가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회는 여러분의 요구에 따라 도서관 담당 선생님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2층 도서관 옆에 노트북 컴퓨터와 빔 프로젝터를 이용할 수 있는 3개의 모듬 학습실이 생겼습니다.

모듬 학습실은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받았지만 한 학기가 지난 지금, 그 모습은 처음과 많이 다릅니다. 일부 학생들이 모듬 학습실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또한 모듬 학습실의 기자재를 망가뜨리거나 분실하고, 모듬 학습실을 이용한 후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나가는 등의 일이 자주 발생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청소를 맡은 도서관 친구들도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학생회에서는 모듬 학습실의 운영 규칙을 마련하였으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학생들에게 이용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듬 학습실은 예약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1회에 최대 2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며, 다른 학생들의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용 시간을 준수해주시고, 이용 후에는 청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듬 학습실 내부에서는 물 이외의 음식물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바닥이 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음료를 흘릴 경우에 냄새가 나고 얼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학생 여러분이 필요한 규칙이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쾌적한 모듬 학습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㉔]

4.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2’는 모듬 학습실 이용의 문제점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말하고 있군.
- ② ‘학생 3’은 모듬 학습실 이용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하고 있군.
- ③ ‘학생 1’은 ‘학생 3’이 제안한 내용을 실행할 주체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군.
- ④ ‘학생 3’은 ‘학생 1’이 언급한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기자재 관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군.
- ⑤ ‘학생 2’는 모듬 학습실 청소에 대한 자신의 견해의 근거로 ‘학생 1’의 말을 제시하고 있군.

5. (가)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 의견에 부분적으로 동의한 뒤,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② 문제 상황을 언급한 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물음의 형식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동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상대방이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⑤ 상대방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함을 확인하고 있다.

6. (가)를 바탕으로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듬 학습실에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이유를 언급한다.
- ② 모듬 학습실을 만들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 ③ 모듬 학습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소개한다.
- ④ 학생들이 모듬 학습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 ⑤ 학생들로 인해 모듬 학습실의 기자재가 망가진 경우도 있음을 알린다.

7. [B]를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 기자재는 우리가 사랑하는 학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학교 기자재는 여러분의 꿈을 키워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함께 모듬 학습실을 학교의 보물처럼 아껴주도록 해요.
- ② 자기만을 생각하는 차가운 모듬 학습실, 친구를 배려하는 따뜻한 모듬 학습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호텔 같은 모듬 학습실을 만들어 나갑시다.
- ③ 시끄러운 모듬 학습실이 좋은가요? 조용한 모듬 학습실이 좋은가요?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모듬 학습실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 ④ 지저분하게 어질러진 모듬 학습실을 원하십니까? 쾌적하게 정리된 모듬 학습실을 원하십니까? 모듬 학습실에서 행복한 학교생활을 시작합시다.
- 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모듬 학습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만듭시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도록 설득하는 글을 써 주세요.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 자전거 등하교로 인한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을 언급하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 자전거에 대한 안전 의식의 미흡함을 언급해야겠어. ㉡
- 자전거 안전장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줘야겠어. ... ㉢
- 자전거를 운전하기 전에 안전모를 정확하게 착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겠어. ㉣
- 자전거로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방법을 소개해야겠어. ... ㉤

<초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자전거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에 따라 자전거로 등하교하던 학생이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져 이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자전거에 대한 안전 의식이 매우 부족하다. 자전거로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이 자전거 안전 수칙을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방법을 알리기 위해 정부는 최근에 자전거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 첫째, 자전거에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자전거에 장착할 안전장치로는 전조등과 후미등, 반사 장치 등이 있다. 둘째,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학생들은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셋째, 자전거 운행 시 휴대전화나 이어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주의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자전거 안전 수칙 외에도 자전거로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등의 범칙 행위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을 철저히 지키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다. 하지만 안전은 원래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다. 그것은 자전거를 탈 때도, 자동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이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매듯이 자전거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쓰는 습관이 필요하다.

8. ㉠~㉤ 중,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자전거 안전 수칙에 대한 설문 내용 및 결과(대상: 학생)

1.

다음 중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응답
자전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40%
야간 운행 중 전조등, 후미등 미장착	24%
자전거 음주 운전	18%
자전거 권장 속도위반	10%
자전거 운행 시 안전모 미착용	8%
합계	100%

2.

자전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응답
안전 수칙을 몰라서	45%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불편해서	30%
안전 수칙을 지키는 데 필요한 비용 때문에	18%
기타	7%
합계	100%

(나) 관련 기사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일어난 자전거 사고 중 71.7%는 안전 수칙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였다. 특히 안전 모를 쓰지 않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았다. 차도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도 많았는데, 자전거로 차도를 이용할 때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 차로의 오른쪽 절반에서 타야하며, 두 대가 양옆으로 나란히 주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 교통안전 전문가 인터뷰

차량이 야간에 운행을 하면 가시거리가 주간 운행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야간에 발생하는 차량과 자전거와의 사고는 낮에 일어나는 사고보다 치사율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후미등을 켜 놓더라도 더 밝은 자동차 불빛이 비추면 자전거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반사 스프레이를 자전거나 옷에 뿌려야 합니다.

- ① ‘(가)-1’을 활용해 자전거 안전 수칙에 음주 운전 금지와 권장 속도 지키기를 추가해야겠어.
- ② ‘(가)-2’를 활용해 학생들에게 자전거 안전 의식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해야겠어.
- ③ (다)를 활용해 자전거를 야간에 운행할 때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여야겠어.
- ④ (나)와 (다)를 활용해 차량과 자전거와의 사고를 예방하는 데 후미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각해야겠어.
- ⑤ ‘(가)-1’과 (나)를 활용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안전모 착용이 중요하므로 학생들이 이를 알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겠어.

10. <보기>는 초고를 읽은 편집부의 검토 의견과 이에 따라 학생이 고쳐 쓴 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편집부의 검토 의견]
초고 잘 읽었습니다. (㉠) 내용으로 마지막 문단을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쳐 쓴 글]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휴대전화나 이어폰 사용 금지, 도로교통법 준수 등이다. 자전거를 탈 때에 안전모를 쓰는 습관과,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 자전거에서 내려 걸어가는 습관 등이 필요하다. 이제 모두 자전거의 안전 수칙을 실천해야 할 때이다.

- ① 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기 위한 실천을 촉구하는
- ② 글의 목적을 밝히며 자전거의 안전장치에 대한 인식 전환을 강조하는
- ③ 전달하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전거 정비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제안하는
- ⑤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때의 안전 속도 준수를 제시하는

11.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음운 현상은 바뀌게 되는 음운, 바뀌어 나온 음운, 일어나는 조건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음운 현상은 음운 수의 변화,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의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음운 현상 외에 또 다른 음운 현상이 더 적용될 수도 있다.

<보기 2>

‘답+만 → [당만]’, ‘잎+만 → [임만]’, ‘웃+는 → [운 : 는]’, ‘답+는 → [당는]’은 비음화의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명확히 보여 준다. 또한 비음화 외에 또 다른 음운 현상이 더 적용된다.

- ① 비음화가 일어나는 조건은 ‘ㅁ, ㄴ 앞’이다.
- ② 비음화에 의해 바뀌게 되는 음운은 ‘ㅂ, ㄷ, ㄱ’이다.
- ③ 비음화는 조음 방법은 달라지지만 조음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 음운 현상이다.
- ④ ‘답+만 → [당만]’의 경우 비음화에 의해 음운의 수가 줄어든 예로 볼 수 있다.
- ⑤ ‘국+물 → [궁물]’의 경우 안울림소리가 ‘ㅇ’으로 바뀌므로 비음화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12. <보기>의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그녀는 여름 방학이 어서 오기를 기다린다.
㉡ 해군 부대는 함정이 한참 부족했으나 용맹한 자세로 전투에 나섰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은 명사절을 안고 있지만 ㉡은 인용절을 안고 있다.
- ③ ㉠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지만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다.
- ④ ㉠에는 주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지만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
- ⑤ ㉠에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안긴절이 있지만 ㉡에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안긴절이 있다.

13. <보기>는 사전 자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실리다¹
「동사」
【…에】
「1」 옮겨지기 위하여 탈 것, 수레, 비행기, 짐승의 등 따위에 올려지다. ‘실다’의 피동사.
☞ 다음 날 밤 그는 포승을 찬 채 지프차에 실리어 갔다.
「2」 사람이 어떤 곳을 가기 위하여 차, 배, 비행기 따위의 탈 것에 오르게 되다. ‘실다’의 피동사.
「3」 글, 그림, 사진 따위가 책이나 신문 따위의 출판물에 나오게 되다. ‘실다’의 피동사.
☞ 신문에 우리 학교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4」 기운이 무엇에 품기거나 띠게 되다. ‘실다’의 피동사.

실리다²
「동사」
【…에 …을】
물체나 사람을 옮기기 위하여 탈 것, 수레, 비행기, 짐승의 등 따위에 올린다. ‘실다’의 사동사.
☞ 구급차에 환자를 실려 보낸다.

- ① ‘실리다¹」「1」의 능동사인 ‘실다’는 주어 외에도 목적어와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 ② ‘실리다¹」「4」의 용례로 ‘눈에 겁이 잔뜩 실려 있다.’를 제시할 수 있다.
- ③ ‘실리다²」에서 제시된 용례를 주동문으로 만들려면 부사어를 주어로 바꿔야 한다.
- ④ ‘실리다¹」과 ‘실리다²」는 서로 동일한 품사이면서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 ⑤ ‘실리다¹」과 ‘실리다²」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의미 자질은 단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최소 성분을 말한다. 의미 자질을 표시할 때는 여러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또는 [-기준]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예컨대 ‘소녀’, ‘소년’,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 자질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소녀 : [-남성], [-어른], [+인간]
- 소년 : [+남성], [-어른], [+인간]
- 할머니 : [-남성], [+어른], [+인간]
- 할아버지 : [+남성], [+어른], [+인간]

그런데 위 단어들의 공통된 의미 자질, 즉 [+인간]을 표시하고 나면 [+포유류], [+동물] 등의 의미 자질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의미 자질은 [+인간]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포유류], [+동물] 등을 [+인간]의 잉여자질이라 한다.

단어의 의미 자질은 상위어일수록 그 수가 적다. 예컨대 ‘사람’, ‘남자’, ‘소년’의 의미 자질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사람 : [+인간]
- 남자 : [+인간], [+남성]
- 소년 : [+인간], [+남성], [-어른]

한편, 단어의 의미는 변한다. 이는 곧 의미 자질이 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예컨대 15~17세기에 나타나는 ‘마노라’라는 단어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남녀 모두를 가리키는 데 사용됐다. 그러다가 18세기에 이르면 ‘마노라’는 자기보다 지위가 높은 여자만을 가리키게 된다. 19세기에는 ‘마노라’ 외에도 ‘마누라’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 의미로 쓰였다. ‘마노라’의 의미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마누라’는 ‘아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마노라’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마누라’라는 단어만 남았다. ‘마누라’는 ‘중년이 넘은 아내’를 부를 때 외에 ‘중년이 넘은 여자’를 낮춰 부를 때도 사용된다.

14. 윗글을 바탕으로 단어의 의미 자질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총각’과 ‘처녀’의 공통된 의미 자질에는 [-결혼]이 있다.
- ② ‘과일’의 의미 자질의 수는 ‘포도’의 의미 자질의 수보다 적다.
- ③ ‘바다’와 ‘강’의 의미 자질 중의 하나는 [+물]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수탉’이 [+동물]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면 [+닭]은 잉여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낮’이 [+밝음]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면 ‘밤’은 [-밝음]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15.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5세기의 ‘마노라’와 달리 18세기의 ‘마노라’는 [+여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 ② 15세기의 ‘마노라’와 현대의 ‘마누라’ 모두 [+사람]이라는 공통적인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 ③ 18세기의 ‘마노라’와 19세기의 ‘마누라’ 모두 [+여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 ④ 19세기부터 [+가족]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는 ‘마누라’라는 단어가 나타났다.
- ⑤ 19세기의 ‘마누라’와 현대의 ‘마누라’ 모두 [-아내]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대바람 소리
들리더니
소소한 대바람 소리
창을 흔들더니

소설(小雪) 지낸 하늘을
눈 머금은 구름이 가고 오는지
미닫이에 가끔
그늘이 진다.

국화 향기 흔들리는
좁은 서실(書室)을
무료히 거닐다
앉았다, 누웠다
잠들다 깨어 보면
그저 그런 날을

눈에 들어오는
병풍의 ‘낙지론(樂志論)’을
읽어도 보고……

그렇다!
아무리 쪼들리고
웅숭거릴지언정
— ‘어찌 제왕의 문에 들을 부러워하랴’

대바람 타고
들려오는
머언 거문고 소리……

- 신석정, 「대바람 소리」 -

(나)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솔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리
 그러면 지나온 날들처럼
 남은 생도 벉차리
 봄이 오는 이 숲에서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
 숲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은 솔가지에서 솔가지로 가벼이 내리네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 거기 이는
 바람이여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
 눈을 뜨리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숲에서
 - 김용택, 「그대 생의 숲에서」 -

16.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고 있다.
- ⑤ 은탄적 어조를 사용하여 자연물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신석정은 지조를 지키는 삶을 중시했던 작가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어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려는 다짐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에 인용된 낙지론의 말미에는 ‘豈羨夫入帝王之門哉(어찌 제왕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부러워하겠는가)’라는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세속적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난하지만 지조를 지키겠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잘 형상화되고 있다.

- ① ‘좁은 서실’은 무료한 일상의 공간이자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 ② ‘그렇다’라는 독백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다짐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③ ‘쫄들리고 / 응송거릴지언정’은 화자가 벗어나려는 가난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④ ‘제왕의 문’은 화자가 부정하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의미한다.
- ⑤ ‘대바람 타고 / 들려오는 / 거문고 소리’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환기하는 청각적 이미지이다.

18.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봄산’은 ‘솔이파리’와 ‘상수리나무 묵은 잎’처럼 ‘나’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이겠군.
- ②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로 미루어 볼 때, 화자는 과거에 힘겨운 일을 겪었을 수 있겠군.
- ③ ‘거기 이는 바람’과 ‘찬 서리’는 ‘저 수 많은 새 잎사귀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겠군.
- ④ ‘지나온 날들처럼 / 남은 생도 벉차리’에서 과거를 수용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화자의 심리를 엿볼 수 있겠군.
- ⑤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 둘 필요가 없다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군.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횡포를 일삼던 마름 집을 마을 사람들과 습격했다가 쫓기던 막동이는 다른 데로 피하라는 어머니의 설득으로 마을을 등진다. 얼마 후 잘 지내고 있다는 막동이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는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해방이 된 이듬해 어머니는 막동이가 형무소에 갇혔다는 편지를 받는다. 둘째 아들을 보내 사정을 알아보니 막동이는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을 암살한 죄로 형무소에 갇힌 것이었다.

“뭘 일이란가, 뭘 일이여?”

그게 무슨 벉락 맞을 소리냐고, 우리 막동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그건 다른 사람이 뒤집어쓴 것일 거라고 펄펄 뛰어 보는 것도 마냥 쓸데없는 일이었고, 이때부터 열흘 걸려 한 번씩 허우허우 보성으로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광주 땅에 내리기가 바쁘게 동명동 형무소 면회 창구에 면회 신청을 하여, 두 손을 묶이어나오는 푸르스름한 죄수복의 막동이, 그놈의 허영고 부석 부석한 얼굴을 보면서 쓰라린 마음을 달래곤 했었다. 그러면서 그놈에게 늙은 어머니는, 누가 너에게 그런 죄를 씌웠느냐고 울며불며 물어보곤 했지만, 그놈은 멀거니 이 어미의 얼굴을 건너다볼 뿐 입을 꼭 다물고만 있곤 할 뿐이었다. 그놈의 그런 태도로 미루어, 그놈의 심중에는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할 어떤 사정인가가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만, 그걸 무슨 말로 어떻게 해서 비춰야 할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늙은 어머니는 그 막동이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모두 소갈 머리 없는 자기 때문이라 하며 혀를 깨물고 꼭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마룻장 위에서 울골골 떨고 있는 그 막동이를 그대로 둔 채 눈을 감을 수만 도저히 없는 일이므로, 하루하루가 마냥 답답하고 기막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놈한테 내리뒀던 그 죄를 어떻게 벗겨줄 길이란 없는 일이니,

이제 그놈이 벗어나오는 날까지 이렇게 면회를 가서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것만도 고맙게 여기면서, 부지런히 면회를 다니는 길밖에 없었다.

한데, 그 면회나 자주 다닐 수 있었으면 하련마는 그놈이 집에 있을 때 품팔아 받아들이 낱값으로 마련한 송아지를 도깃 소로 준 것, 그것을 팔아 면회를 다니며 써버린 뒤로는 왔다 갔다 할 차비에 먹고 잘 돈, 면회 다니면서 그놈 먹고 마시게 할 돈…… 그걸 마련 못해 주겠다고 양탈을 하는 자식들의 소행이 못내 섭섭하고 노여워, 늙은 어머니는 그 저수지 둑 밑에 주저앉아 다리를 죽 뺀고 통곡이라도 해버렸으면 시원할 것 같은 심사를 억누르고, 부지런히 활갯질을 하면서 오른손에 든 지팡이를 옮겨 놓았다.

그때 복받치는 격정이 목구멍을 막아 쿨룩 기침을 했고, 그 사이 들이마신 찬바람 때문에 그 기침은 언저푸 터져 나오기 시작하여, 늙은 어머니는 쪼그려 앉아 오그라져 들어가는 뱃가죽을 그러쥐고, 숨이 발딱 넘어가는 곱 고음 소리를 내다가, 헛돌던 치차가 잘못되어 달칵 지르룩 하고 걸려 돌아가는 것처럼 “으음”하고 목을 가다듬으며 일어섰다.

(중략)

이날 면회 신청은 물론 그 늙은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였다. 접수를 하고 나자 늙은 어머니는 조금해졌다. 전에 하던 것으로 보아, 얼마 있지 않아 아들을 데려다 줄 것이라 생각하며 곧 밥집으로 달려갔다. 가는 도중에 우유 장수를 만났다. “아차, 잇을 뺐했구나” 하며 우유 두 병을 샀는데, 그제 제법 따끈한 게 다행이다 싶었다.

그걸 든 채로 밥집으로 가, 쇠고깃국 끓인 냄비를 한 손에 들고, 우유를 찻쌀떡 썩 보자기에 집어넣어 지팡이 든 손에 끼어 들고 면회장 입구로 달려가 기다리는데, 또 왜 이날 아침에야말로 이리도 더디 데려다 주는 것인지 환장할 것 같았다.

㉔ “국이 다 식어빨구만, 어째서 아직 안 데리고 나온다냐?”

하고 투덜거리던 늙은 어머니는, 쇠고깃국과 우유가 식는 게 안타까워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다가 재빨리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다. 쇠고깃국을 대기소 안의 난로 위에 올려놓고, 우유는 치맛말을 들치고 젓가슴에다 꼭 끼워 문었다.

늙은 어머니의 바로 다음 차례로 접수를 했던 부인들과 남정네들이 자기들 이름을 불러줄 것을 기다리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대기소에서 면회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지키는 교도관은 죄수들이 도착할 때마다 그 죄수 면회 온 사람 이름을 불러들이곤 했다.

㉕ ‘아니, 어쩐 일이란가?’

맨 먼저 접수를 시켰으니 응당 “이막동이 면회 온 분!” 하고 늙은 어머니의 이름을 더 먼저 불러들여야 할 일인데도, 이미 늙은 어머니보다 훨씬 늦게 접수한 사람들을 무려 여섯 사람이나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이면서도, 그 늙은 어머니를 불러 넣어주지는 않는 것이었다.

㉖ ‘뭘 댁시 이란단가?’

혹시 그놈이 아파서 못 나오는 것은 아닌가, 아니 어디 다른 데로 보내버렸을까 하며 조금해진 늙은 어머니의 생각에, 꼭 열두 번째의 사람을 면회장 안으로 불러들였다고 느껴지는

순간 “이막동이 면회 온 분!” 하는 소리가 들려, ㉗ “휘이, 이제야 데리고 나왔는가 보다” 하며 난로 위의 뜨거운 쇠고깃국 냄비를 뜨거운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덥석 들어 안고 면회장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입구를 지키던 교도관이 “할머니!” 하고 늙은 어머니를 세우더니 손에 든 종이쪽지를 옆에 서 있는 다른 교도관에게 보이며 무슨 말인가를 속닥거렸다. 그러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쓴 입맛을 다시고 “이막동이 아들이오?” 하고 물었다. “에에.”

가슴이 후들거리고 기침이 목구멍 너머에서 자주 근질거리며 튀어 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어 억누르는데, “이막동이 말고 아들 또 있고?” 하고 다시 물었다. 둘이나 있다고 하자 그 교도관은 옆에 있는 교도관하고 말을 주고받은 뒤 고개를 주억거리다가, “이막동이 어제 옮겨갔어요” 하는 것이었다.

무슨 뜻이냐고 묻자 교도관이 어쩔장하게 생긴 얼굴을 다시 한 번 일그러뜨리고, 문밖으로 멀리 갔다는 손짓을 곁들여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목포로 갔단 말이오, 어제. 빨리 그리로 가보시오” 했다.

늙은 어머니는 자기의 귀를 의심했다.

“목포로 옮겨라우?”

교도관은 고개를 깊이 주억거리려고, 잠시 동안 천장을 멀거니 쳐다보다가 다음 사람을 불렀다.

㉘ “어따 어메, 어째사 쓸꼬!” 하고 허둥허둥 나서다가, 쿨룩 쿨룩 터져 나오는 기침 때문에 창자를 그러쥐느라고 쪼그려 앉은 늙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우유병 하나가 떨어져 하얗게 박살이 나고 있었다. 옆에 섰던 한 남자가 안되었다는 듯 끝끝 혀를 차는 것이, 그 늙은 어머니의 귀에 들어갔을 까닭이 없을 것이었다.

- 한승원, 「어머니」 -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작중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 ② 동시에 벌어진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하고 있다.
- ③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다양한 인물로 바뀌면서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속 인물이 과거의 일을 고백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20. ㉔~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㉔: 막동이를 어서 만나고 싶어 하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㉕: 막동이를 만날 수 없으리라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 ③ ㉖: 막동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④ ㉗: 막동이를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반가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㉘: 막동이를 만나지 못한 상황에 대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해방 후 현대사의 정치적 격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민족의 분열과 갈등에 휘말려 사형 선고를 받고 형무소에 갇힌 아들과 그 사실을 모르는 채 옥바라지를 하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그리고 있다.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아들을 탓하는 대신 자신의 탓으로 전가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 준다. 또한 다른 어떤 현실적 가치보다도 자식을 우선시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모정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① 돈을 마련 못해 주겠다고 양탈하는 자식들과 어머니의 갈등은 해방 후 정치적 격동기의 단면을 보여 주는군.
- ② 막동이 처한 상황을 두고 자책하는 모습은 불행한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전가하는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 주는군.
- ③ 송아지를 팔아 막동이 면회를 갈 돈을 마련하는 어머니를 통해 현실적 가치보다 자식을 우선시하는 모정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군.
- ④ 쇠고깃국을 난로에 올리고 우유를 젓가슴에 품는 모습에서 아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어머니의 지극한 모정을 느낄 수 있군.
- ⑤ 다른 사람이 막동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 생각하는 어머니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교호(交好)란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상호 작용과 의사소통을 뜻한다. SNS는 이용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갱신하여 교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한다. 어떤 SNS의 입력창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라는 질문이 항상 제시되어 있다. 이용자는 이 질문을 볼 때마다 자신의 계정에 무언가 써야만 할 것 같은 압박, 즉 기록 압박에 빠지게 된다. SNS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은 계량적 지표로 활용되어 이용자를 서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이 서열을 자신의 정체성과 결부시켜 받아들일 수 있다. 가령 더 자주 접속하여, 더 많은 게시물과 반응을 남기는 이용자는 자기 스스로 SNS 공간에서 유명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록 압박은 노출 심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무언가 써야 한다는 압박은 손쉽게 쓸거리를 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나’에 주목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가상 세계인 SNS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 세계에서의 지위나 역할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그래서 이용자들은 현실 세계에 비해 SNS에서 자기의 행적과 감정 등을 드러내는 일에 더 적은 부담을 갖는다.

철학자 슈티글러에 따르면 사건(event)이란 발생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골라 정보로 구성해 낸 결과이다. 그것은 주로 공적인 성격을 띤다. 그런데 기록 압박과 노출 심리는 자신의 상태를 ‘미시적 사건’으로 구성해 내도록 SNS 이용자들을 유도한다. 이들은 오늘 점심에 어떤 식당에서 어떤 메뉴의 음식을 누구랑 먹었는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어제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등을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 공적인 공간에 게시한다. 이런 경향을 ‘미시적 사건화’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미시적 사건화는 공적 성격이 부족한 일상의 자질구레한 경험들을 공적인 공간인 SNS에 게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SNS에 무의미한 정보가 범람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시적 사건화와 그 제공자는 ‘관심’의 대상보다는 ‘관음’의 대상이 되기 쉽다. 상대방에 대한 주의를 기준으로 할 때, 사회적 상호 작용은 크게 ‘관심’과 ‘관음’의 양식으로 구별된다. ㉠ **관심의 양식**이 양방향적 시선에 기반을 둔 열려나 기쁨이라 하면, ㉡ **관음의 양식**은 일방향적 시선에 기반을 둔 욕망의 표출에 가깝다. 즉 전자는 타인이 처한 상황과 타인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상대방에게 공감하는 정신의 과정을 말하는 반면, 후자는 오로지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상황과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신의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관심의 양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타자를 존중하고 타자의 안위를 바라지만, 관음의 양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나’는 자신의 만족에만 몰두할 뿐 타자의 안위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투자하여 맺을 수 있는 관계의 규모가 무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NS는 친구 찾기와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로 하여금 SNS 친구를 지속적으로 늘려 가도록 유도한다. 어떤 SNS의 경우 대략 150명에서 500명 정도의 친구를 둔 이용자가 가장 많다고 한다. SNS에서 150명 이상의 친구를 자주 찾아가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안위를 염려하는 정신적 활동을 감당하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SNS를 매개로 한 교호 활동은 상대방에 대한 염려를 기반으로 하는 관심의 양식보다 자기만족을 위한 관음의 양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하게도, 관음의 양식은 진정한 교호 관계와 거리가 멀다.

SNS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게시물과 댓글의 주고받음을 양방향적 또는 상호작용적 교호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염려와 공감에 기반을 둔 관심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미시적 사건(구경거리)의 주고받음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시선들의 기계적 모음이라 할 수 있다. 비유컨대 타인의 삶을 구경거리 삼아 디지털 공간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SNS 이용자는 ㉢ **‘현대 디지털 산보자’**인 셈이다. SNS는 이러한 방식의 교호 활동을 부추기기 때문에 인간은 SNS 공간에서 더 많은 친구들과 이어져 있음에도 더 외로워지고, 관계는 더 빈곤해진다.

물론 SNS 공간에서 모든 이용자가 이러한 양상을 경험하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어떤 이용자들은 SNS를 인간 관계의 심화나 지적 능력의 확장, 민주적 공론화의 장 마련 등을 위한 생산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는 ‘너’와 ‘나’의 관계를 일방향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성격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밝히고 있다.
- ③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④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⑤ 전문가의 견해를 활용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2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는 수시로 자신의 SNS 방문자 수와 ‘좋아요’ 수를 확인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습관적으로 누른다. 방금 전에도 어떤 사람의 SNS 게시물을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좋아요’를 누르고, “고양이가 멋지네요. 제 계정에도 놀러 오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그리고 친구 추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고양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이를 슬퍼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린 것이었다.

△△는 SNS 친구가 SNS에 올린 축하 파티 사진 게시물을 확인했다. 그 친구는 오랫동안 준비했던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파티를 한 것이었다. △△는 거기에 “오랫동안 노력하더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참 다행이네요. 축하해요!”라고 진심 어린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눌렀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고마워요. 지난번 보내준 위로 메시지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이번 합격은 다 △△님 덕분입니다.”라고 답했다.

- ① 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는 점에서, □□의 행동은 ㉠보다 ㉡에 가깝다.
- ② 수시로 SNS 방문자 수와 ‘좋아요’ 수를 확인하고 친구 추가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 행동은 ㉠보다 ㉡에 가깝다.
- ③ SNS 친구와 서로 위로와 축하를 주고받는다라는 점에서, △△의 행동은 ㉠보다 ㉡에 가깝다.
- ④ SNS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 행동은 ㉠보다 ㉡에 가깝다.
- ⑤ 다른 사람의 SNS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점에서, □□와 △△의 행동 모두 ㉠보다 ㉡에 가깝다.

24. 윗글의 ㉠와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스펙터클은 특별한 또는 새로운 볼거리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된다. 19세기 파리는 그 자체로 산보자의 스펙터클이었다. ㉡ 19세기 파리의 산보자는 잘 닦인 파리의 대로(大路)를 걸으며 새로운 근대적 도시를 경험하였다.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파사주’(작은 쇼핑몰)를 찾아 쇼핑하는 산보자들에게 파사주는 그 자체가 ‘도시’이자 ‘축소된 세계’였다. 대로의 카페에 앉아 있는 산보자는 스펙터클로 변화한 세계의 구경꾼이자 또 다른 산보자의 스펙터클이기도 했다.

- ① ㉠가 바라보는 대상은 주로 타인이 구성한 미시적 사건이다.
- ② ㉡가 바라보는 대상은 근대적 도시와 그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 ③ ㉠와 ㉡ 모두 바라보는 행위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대상이 되기도 한다.
- ④ ㉠와 ㉡ 모두 ‘나’의 외부에 있는 대상을 구경하는 자의 시선을 갖고 있다.
- ⑤ ㉠가 바라보는 대상은 실제 세계인 반면 ㉡가 바라보는 대상은 가상 세계이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A]를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SNS에서는 기상이나 교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에 차가 막혀서 지각했다는 소식은 SNS에 빠르게 게시된다. 이런 소식은 뉴스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닌, 개인의 자질구레한 일상을 담은 미시적 사건이다. 그러나 1분, 1초가 아쉬운 직장인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는 매우 유용할 수도 있다.

- ① 학생 1: SNS에 올라온 미시적 사진들을 보다 보면 참 즐겁고 흥미로워.
- ② 학생 2: 개인의 관점에서는 공적 삶보다 사적 삶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 ③ 학생 3: 자신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가치 있는 일이잖아.
- ④ 학생 4: SNS에 게시된 사소한 일상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될 수 있어.
- ⑤ 학생 5: 의사소통 내용은 공적이지만 사적인 공간에 게시된 것도 미시적 사진화라 할 수 있어.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죄 지을 줄 아라시면 공명 탐(貪)츠 허여시라.
 ㉠ 산진(山陣)미 슈진(水陣)미와 히동청(海東靑) 보라민가
 심슈 총님(深樹叢林) 숙어나러 산계 야목(山鷄夜鶩) 츄고 날 제,
 앓갑다. 걸렸구나. 두 날개 걸렸구나.
 먹기의 탐(貪)이 나니 형극(荊棘)을 몰나 보니.
 어와 민망하다. 주인 박대 민망하다.
 아니 먹은 헛 주정(酒醞)에 욕설조차 대단하다.
 혼즈 안즈 군말흐듯 날 드르라 혼는 말이,
 건넌 집 나그니는 정승의 아들이요
 뒷집의 손님니는 판서의 아우로서
 나라의 득죄(得罪)호고 외탄섭 드리오면
 ㉡ 이전(以前) 말은 호도 말고 여귀 슝름 일을 비와
 고기 낙기 나무 뷁기 즈리치기 신삼기와
 보리 동냥 허여다가 주인 양식(糧食) 보티거든

한곳에서는 무슨 일도 공(空)한 밥을 먹으랴노
 ㉠ 쓰즈는 열 손가락 씹죽이도 아니흐고
 것즈는 두 다리는 움죽이도 아니흐니
 석은 나무에 박은 썩인가 전당(典當) 잡은 촉디(燭臺)런가
 종 찾으려는 상진인가 빛 받으려는 채주(債主)런가
 동이성(同異姓)의 권당*인가 뜻낫*의 친구런가
 ㉡ 양반인가 상인인가 병인(病人)인가 반편인가
 화초(花草)라고 두고 불가 괴석(怪石)이라 노코 불가
 은혜 끼친 일이 있서 특명(特命)으로 먹으려나
 저 지은 죄 뉘 타시며 제 셔름을 니 아던가
 밤나즈로 우는 소리 슬픈 소리 듯기 싨타.
 혼 번 들고 두 번 들고 통분기도 흐다마는
 풍속을 보아흐니 놀랄 일이 막심흐다.
 인륜이 업서시니 부즈(父子)의 쓰흠이요
 남너를 불분흐니 계집의 등짐이다.
 방언(方言)이 괴이흐니 존비(尊卑)를 아올손가.
 다만 아는 거시 손굽아 주먹 험의
 두 다섯 홀 다섯에 못 다섯 쏘기로다.
 포학 탐욕이 예의 염치 되어서며,
 분전(分錢) 승합(升合)*으로 효제 충심 습아서며,
 한둘 공덕흐면 지효(至孝)로 아라시며,
 ㉢ 혼정신성(昏定晨省)*은 보리 담은 큰 항아리요
 출필고(出必告) 반필면(反必面)*은 돈 모으는 병어리라.
 무지(無知)가 이러흐고 막지(莫知)가 이러흐니,
 왕화(王化)가 불급(不及)흐니 견용(犬戎)의 행사*로다.
 인심이 아니어든 인사를 책망흐랴.
 내 귀양살이 아니라면 이런 일 보아시랴.
 - 안도환, 「만언사(萬言詞)」 -

- * 권당: 친척.
- * 뜻낫: 익힌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얼굴.
- * 분전승합: 푼돈과 얼마 되지 않은 곡식.
- * 혼정신성: 아침저녁으로 부모의 안부를 물어서 살핀.
- * 출필고 반필면: 나가고 돌아올 때 부모님께 인사하는 예법.
- * 왕화: 임금의 교화.
- * 견용의 행사: 오랑캐의 행동.

(나)

앞으로 나아가 소년대(少年臺)에 올랐다. 천왕봉을 우러러 보니 구름 속에 높이 솟아 있었다. 이곳에는 잡초나 잡목이 없고 푸른 잣나무만 연이어 나 있는데, 눈보라와 비바람에 시달려 앙상한 줄기만 남은 고사목이 10분의 2~3은 되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한 노인의 머리 같으니 다 속아 낼 수 없을 듯하다. ‘소년’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을 보면, 혹 **영랑***의 무리를 일컬을 듯하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천왕봉은 장로(長老)이고 이 봉우리는 장로를 받들고 있는 소년처럼 생겼기 때문에 ‘소년대’라 이름 붙인 것 같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수많은 봉우리와 골짜기가 주름처럼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서도 오히려 이려한데, 하물며 제일봉에 올라 바라봄에랴.

드디어 지팡이를 내저으며 **천왕봉**에 올랐다. 봉우리 위에 판잣집이 있었는데 바로 성모사(聖母祠)였다. 사당 안에 석상 한 구가 안치되어 있었는데 흰옷을 입힌 여인상이었다. 이 성모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혹자는 말하기를 “고려 태조대왕의 어머니가 어진 왕을 낳아 길러 삼한을 통일하였기 때문에 높여 제사를 지냈는데, 그 의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 영남과 호남에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을 비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떠받들고 음사(淫祠)*로 삼으니 바로 초나라, 월나라에서 귀신을 숭상하던 풍습이다. 원근의 무당들이 이 성모에 의지해 먹고산다. 이들은 산꼭대기에 올라 유생이나 관원들이 오노지를 내려다보며 살피다가, 그들이 오면 토끼나 꿩처럼 홀어서 숲속에 몸을 숨긴다. 유람하는 사람들을 엿보고 있다가, 하산하면 다시 모여든다.

봉우리 밑에 벌집 같은 판잣집을 빙 둘러 지어놓았는데, 이는 기도하러 오는 자들을 맞이하여 목게 하려는 것이다. 짐승을 잡는 것은 불가에서 금하는 것이라 핑계하여,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소나 가축을 산 밑의 사당에 매어놓고 가는데, 무당들이 그것을 취하여 생계의 밀천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성모사, 백모당, 용유당은 무당들의 3대 소굴이 되었으니, 참으로 분개할 만한 일이다. 이 날 비가 그치고 날이 개어 뿌연 대기가 사방에서 걷히니, 광활하고 까마득한 세계가 눈앞에 끝없이 펼쳐졌다. 마치 하늘이 명주 장막을 만들어 이 봉우리를 위해 병풍처럼 둘러친 듯하였다. 감히 시야를 가로막는 한 무더기 언덕도 전혀 없었다.

(중략)

삼면에 큰 바다가 둘러 있는데, 점점이 흩어진 섬들이 큰 파도 속에 출몰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마도의 여러 섬은 까마득히 하나의 탄환처럼 작게 보일 뿐이었다. 아, 이 세상에 사는 덧없는 삶이 가련하구나. **항아리 속에서 태어났다 죽는 초파리** 때는 다 굶어모아도 한 움큼도 채 되지 않는다. 인생도 이와 같거늘 조잘조잘 자기만 내세우며 옳으니 그러니 기쁘니 슬프니 하며 떠벌리니, 어찌 크게 웃을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오늘 본 것으로 치면, 천지도 하나하나 다 가리키며 알 수 있으리라. 하물며 이 봉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의 작은 물건이니, 이곳에 올라 높다고 하는 것이 어찌 거둬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니겠는가? 저 안기생, 악전*의 무리가 난세의 날개와 학의 등을 타고서 구만리 상공에 떠 아래를 바라볼 때, 이 산이 미세한 새털만도 못하리라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사당 밑에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잣나무 잎을 엮어 비바람을 가리게 해 놓았다. 승려가 말하기를 “이는 매를 잡는 사람들이 사는 움막입니다.”라고 하였다. 매년 8, 9월이 되면 매를 잡는 자들이 봉우리 꼭대기에 그물을 쳐 놓고 매가 걸려 들길 기다린다고 한다. 대체로 매 가운데 잘 나는 놈은 천왕봉까지 능히 오르기 때문에 이 봉우리에서 잡는 매는 재주가 빼어난 것들이다. ㉣ 원근의 관청에서 쓰는 매가 대부분 이 봉우리에서 잡힌 것들이다. 그들은 눈보라를 무릅쓰고 추위와 굶주림을 참으며 이곳에서 생을 마치니, 어찌 단지 관청의 위엄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일 뿐이라. 또한 대부분 이익을 피하여 삶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리라. 아, 소반 위의 진귀한 음식 한 입도 안 되지만 백성의 온갖 고통 이와 같은 줄 누가 알겠는가. 해가 기울어 향적암(香積庵)으로 내려갔다.

- 유몽인, 「유두류산*록(遊頭流山錄)」 -

- * 영랑: 신라 때 화랑의 우두머리.
- * 음사: 유가(儒家)에 어긋나는 제례나 그 행위를 일컬음.
- * 안기생, 악전: 중국 신선의 이름들.
- * 두류산: 지리산의 옛 이름.

26.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② 고립된 처지에서 비뚤한 비애가 드러나 있다.
- ③ 경계하는 삶에 대한 끝없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가난한 현실을 이겨내고자 하는 진취적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⑤ 정치적 포부를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 있다.

27.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공훈 밥'을 먹으려 한다며 '주인'에게 '박대' 당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놀랄 일이 막심'하다면서 자신이 거처하는 곳의 '풍속'을 '견용의 행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소년대'라는 이름의 유래를 살펴며 '천왕봉' 유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영랑'을 떠올리며 선인들이 남긴 옛일을 회고하고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천왕봉'에 올라 '항아리 속에서 태어났다 죽는 초파리 떼'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유배에 처하게 된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가 배운 일들을 열거하여 화자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대구의 표현을 활용하여 풍자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 동일한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냉소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⑤ ㉣: 비유적 수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29. ㉠,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화자에게 앞으로 닥칠 상황을 상징한다.
- ② ㉠은 ㉡와 달리 화자 자신의 불우한 상황을 비유한 자연물이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와 타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한다.
- ④ ㉠과 ㉡ 모두 탐욕으로 인해 고통 받는 존재이다.
- ⑤ ㉠과 ㉡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덕목을 드러낸다.

30.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전통적으로 산은 만물을 만들어내는 어머니로 인식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지리산 성모(聖母)에게 조정의 관리가 의례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유교적 이념이 확립되어감에 따라 지리산 성모 신앙은 부침을 겪게 된다. 유몽인이 지리산 유람을 한 시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이다. 백성들은 생활 터전이 파괴된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더 이상 지배층과 임금에게서 찾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암울한 상황을 일순간에 벗어나게 해 줄 수 있는 초자연적 존재를 찾아 의탁하고자 했다. 무당들은 이러한 백성들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조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강력히 금지하지 못했다. 당대 조선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할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 ① '흰옷을 입힌 여인상'을 '고려 태조대왕의 어머니'와 연결 지어 이해하는 것은 전통적인 성모 신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복을 비는 자들'의 행위를 '음사'로 규정하면서도 강력히 제재하지 못하는 것은 당대 조선이 백성들을 위로할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원근의 무당들이 이 성모에 의지해 먹고'살 만큼 백성들이 찾아온다는 것에서 임진왜란으로 인해 도탄에 빠졌던 백성들이 초자연적 존재에 의탁하기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④ '유생이나 관원들이' 오면 '토기나 쟁처럼 흩어져 숲속에 몸을' 숨기는 것에서 생활 터전이 파괴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배층에게서 찾기 어려웠던 백성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성모사, 백모당, 용유담은 무당들의 3대 소굴'이라고 지칭하며 '분개'한 것에서 유몽인이 유교적 이념의 테두리 속에서 지리산 성모 신앙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산권은 경제적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해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 권리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철회받지 않는다. 배타적, 독점적 권리라는 말은 재산을 자기 뜻대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재산권자가 아닌 사람이 재산을 사용, 수익, 처분하려면 반드시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말한다. 그래서 국가는 재산권 제도를 만들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것은 재산권 제도가 실질적으로 사회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재산권 제도가 사회 전체를 위한 제도일까?

갑과 을이라는 두 사람만 있는 사회가 있고, 이 사회는 아직 재산권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거래나 교환은 재산권 제도를 전제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아직 거래나 교환이 존재할 수 없다. 이 상황에서 갑과 을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재화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스스로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이 생산한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다. 결국 갑과 을은 자신이 보유한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을 생산과 약탈에 적절히 배분함으로써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총량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약탈에 대한 도덕적 죄책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갑은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 을의 재화를 약탈하는 경우에 적거나 동일한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갑은 자신의 자원을 약탈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반대의 경우라면 갑은 자신의 자원을 생산하는 쪽에 더 많이 배분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을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갑과 을은 상대방의 약탈로부터 자신의 재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에 자원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갑과 을은 자신들의 재화를 생산, 약탈, 방어 세 분야로 나누어 사용하게 된다.

[A]

이 사회에서 갑이나 을 중 한 사람은 상대의 재산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화를 약탈하는 것이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도 자신의 재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권을 부인하게 된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재산권을 부인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앞의 경우와 달리 이 사회에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면, 국가에 의해서 그 권한의 행사가 ㉠ 강제되기 때문에 갑과 을은 약탈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이들은 약탈이나 방어에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에만 모든 자원을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전체가 생산하는 재화의 총량은 최대가 된다. 이처럼 사회의 재화의 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재산권 제도를 위해서는 입법 비용, 경찰 비용 등 여러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의 증가분이 재산권 제도로 인한 사회의 재화의 증가분보다 작을 경우 재산권 제도가 있는 것이 사회에 더 효율적이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재산권이 배타적 권리라는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일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떤 철도 회사가 자기의 철도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권이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라면 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도 마음대로 ㉡ 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오염 물질로 인하여 철도 인근의 농민들이 소유한 경작지의 가치는 그만큼 감소하므로 농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것이다. 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서로 다른 두 재산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즉 권익권을 누구에게 ㉢ 부여할 것인가를 법적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철도 회사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위해 드는 비용이 100이고, 오염 물질로 인해 농민이 받는 피해는 50이라고 하자. 우선 법이 농민들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철도 회사의 오염 물질 배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철도 회사는 100의 비용을 들여 오염 물질의 배출을 막거나, 농민들이 가진 권익권을 구매해야 한다. 그 권익권의 가격이 100보다 작다면 철도 회사는 권익권을 구매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 경우 권익권은 농민들이 입는 피해인 50보다 크고, 철도 회사의 비용인 100보다 작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농민들이 철도 회사에 권익권을 판매하면 철도 회사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농민들은 오염 물질로 인한 자신들의 손해인 50보다 큰 금액을 철도 회사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반면에 법이 철도 회사의 권익권을 인정하는 경우, 농민들은 자신이 입는 피해에 해당하는 50보다 작은 가격에는 철도 회사의 권익권을 사려하겠지만, 50보다 큰 가격으로는 사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철도 회사는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는 자신들의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권익권을 판매할 경우에 들어야 하는 비용이 100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도 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권익권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철도 회사는 오염 물질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그런데 앞의 경우와 다른 점은 농민들은 철도 회사의 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법이 누구의 권익권을 인정하느냐에 따라 소득 분배의 결과는 달라진다.

3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권익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② 재산권은 배타적, 독점적이어서 무제한적인 속성을 지닌다.
- ③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려 한다.
- ⑤ 거래나 교환은 재산권 제도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32. [A]를 바탕으로 <보기>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아래의 표는 재산권 제도가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 갑과 을이 상대의 재산권에 대해 취하는 태도에 따라 각자 가지게 되는 재화의 양을 표시한 것이다. 갑과 을이 자신의 자원을 모두 생산에 사용하여 가질 수 있는 재화의 양은 각각 10과 15이다. (단, 사회 구성원은 갑과 을뿐이고,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한다.)

		갑	
		상대의 재산권 존중	상대의 재산권 부인
을	상대의 재산권 존중	갑=10, 을=15 (가)	갑=14, 을=6 (나)
	상대의 재산권 부인	갑=4, 을=17 (다)	갑=7, 을=10 (라)

- ① (가)의 경우, 사회의 재화의 총량이 최대를 이룬 상태이다.
- ② (나)의 경우, 감의 재화가 14가 된 것은 을의 재화를 약탈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③ (다)의 경우, 을은 자신의 자원 일부를 약탈에 배분했을 것이다.
- ④ (나)와 (다)의 경우, 재산권 제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결국 (라)로 귀결될 것이다.
- ⑤ (라)를 고려할 때, 재산권 제도 확립을 위한 사회적 비용이 10이라면 재산권 제도가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33.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회사는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한다. 공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에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매연 발생 방지 기계가 있으며, 이 기계의 비용은 50이다. (단, 이 과정에서 다른 조건이나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A회사와 ○○지역 주민들은 모두 경제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 ①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50보다 큰 가격이면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파는 것이 이익이겠군.
- ②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100보다 작은 가격으로 A회사의 권익권을 사려 하겠군.
- ③ A회사가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권익권을 판매한다면 A회사는 매연 발생 방지 기계를 설치해야겠군.
- ④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지역 주민들은 80의 가격으로는 A회사에 권익권을 판매하지 않겠군.
- ⑤ ○○지역 주민들이 권익권을 갖는 경우, A회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권익권을 사고, 매연 발생 방지 기계를 설치하지 않겠군.

34. ㉠의 물음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적 약자를 구제할 수 있으므로
- ② 개개인의 권익권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 ③ 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으므로
- ④ 사회의 재화의 총량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 ⑤ 사회적 비용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35. ㉡~㉣의 사전적 의미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세력이나 기운 따위가 쇠함.
- ② ㉢: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
- ③ ㉣: 권력이나 위력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
- ④ ㉠: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
- ⑤ ㉡: 사람에게 권리·명예·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해 줌.

[36~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재상 윤현의 아들 지경과 참판 최홍일의 딸 연화는 서로 사랑하여 혼례를 올리려 하지만, 임금은 이를 무시하고 장원급제한 지경에게 후궁인 귀인 박 씨의 딸(옹주)과의 혼례를 하고 한다. 지경은 이를 거부하지만 임금은 화를 내며 위력으로 혼례를 강행한다. 이에 지경은 최홍일에게 연화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공이 가로되,
“불가하나 네 아내이니 잠깐 보고 가라.”

언파에 소저를 부르니, 소저가 승명하여 ㉠ 전당에 이르러 부인 곁에 앉아 수괴함을 띠어 사색이 태연하여 아는 듯 모르는 듯하고, 아리따운 태도가 달 같아 반가운 정이 유동하고, 어진 태도와 약한 기질을 대하매 마음이 깨어지는 듯하니, 공의 부부가 더욱 슬피하더라.

돌아가기를 잊고 앉았으니 공이 여아를 들여보내고 생(生)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십분 개유하니, 생이 부득이 돌아와 병이 되어 식음을 폐하더니, 길일이 다다라 행례할새 옹주의 자색이 전혀 없고 포독불인(暴毒不仁)*함이 외모에 나타나는 지라. 생이 더욱 불쾌하여 띠를 끄르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고 명조에 임궐하여 문안하니 상이 웃으며 가로되,

“네 죄 크게 통한하더니 이제 자식이 되니 가장 어여쁘다.” 하시고 즉시 부마의 관교(官敎)를 주시니, 웃고 꿇어 받자와 계하에서 사은(謝恩)하고, 귀인을 보니 극히 교만하고 포독하니, 더욱 모퉁이 승연하더라.

박 귀인이 부마의 풍채를 사랑하고 더욱 기꺼워하더라.

부마가 ㉡ 집에 돌아와 대문에 들며 하인을 명하여 교자(轎子)를 산산이 깨치고 들어와, 소매 속으로부터 부마의 관교를 내어 땅에 던지니, 윤공이 크게 책망하여 가로되,

“이 어인 일이뇨. 임금이 주신 교지(敎旨)를 업수이 여김이 어찌 이렇듯 불공한가.”

하고, 또 개유하더라.

윤공의 집이 서문 밖일러니, ㉢ 옹주궁을 경내 골명동에 짓고 상이 윤공을 성내로 들라 하시니, 공이 마지못하여 옹주궁 곁에 집을 사오니, 본집은 둘째 아들 정랑(正郎)에게 주더라.

최홍일의 집이 또한 서문 밖일러라.

옹주를 친영(親迎)*하여 오니, 얼굴이 작고 자색이 바이 없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상하가 불쾌하나, 왕의 위엄을 두려워 공경 접대하더라. 윤공이 최 씨를 불쌍히 여겨 자주 가 보니, 그 용모 태도가 절승하여 볼 적마다 사랑하고 어여쁜 마음 가이 없어라.

부마가 궁에 가지 아니하고 부친 계신 ㉣ 외현에 있어, 조카 격식 등을 데리고 자더니, 하루는 최 씨를 보러 가니 소저가 부모 앞에서 한가지로 보는지라, 바라보매 아미에 시름 맺혔으니 더욱 기이 절묘하더라.

부마가 어여쁨을 이기지 못하여 눈물 나는 줄을 깨닫지 못하더니, 조금 있다가 가로되,

“거년에 포숙(鮑叔)*의 신(信)을 이르시기로, 복은 이리 못 있어 자주 다니되 한 번도 나와 보지 아니코 대접치 아니하시니, 어찌 당초 언약을 저버림이 이 같으뇨.”

소저가 나직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때 우연히 한 말이 맞았으니, 첩은 포숙의 신이 있으려니와, 상공의 말과 같을진대 신후경*의 죽음을 달게 여기시나이까. 첩은 다만 빙채를 지키며 도장에서 늙을지라, 어찌 상공을 접화(接和)하리이까. 사생이 부모에게 있사오니 번거로이 자주 와 찾지 마소서.”

[중략 부분 줄거리] 지경은 응주를 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화와의 만남을 지속한다. 그러던 중 지경은 연화와의 만남을 최홍일에게 발각된다.

“네 언제 이르렀느냐.”

생(生)이 가로되,

“빙부*가 중시 허치 아니하시니, 아내 그리워 견디지 못하와 8월부터 월장할 계교를 내어, 날마다 다녀 스스로 금치 못하다가 오늘 이 옥을 보오니 빙부의 고집한 탓이로다.”

공이 애련하여 등을 쓰다듬어 가로되,

[A] “네 어찌 그리 미혹한가. 응주를 중대하여 자녀를 낳고 살며 응주를 개유하면, 네 부친과 내 주상께 이런 절박한 사연을 고할 것인즉, 주상은 인군(仁君)이시라 허하시리니, 그대 빛나게 헤로하기는 생각지 아니하고, 갈수록 응주를 박대하며 귀인의 험담을 이루고 복성군을 미워하며, 밤을 타 도망하여 날마다 내 집에 오니, 응주가 알면 화가 적지 아니하리니, 끝을 어이할꼬.”

부마가 가로되,

“넌들 어찌 모르리이까마는 응주는 천하 괴물 박색이고, 귀인은 간악이 비할 바 없고, 복성군은 남 혈기 심한데 홍명화·홍상이 박빈을 체결(締結)*하여 필연 그윽한 흥계를 지을지라, 응주를 후대하고 그 당에 들었다가 멸문지환(滅門之患)을 면치 못하리니, 아내를 애중하고 응주를 박대하면 불과 빙부와 부친의 죄가 큰즉 정배(定配)요, 적은즉 삭탈관직(削奪官職)이요, 저는 귀양밖에 더 가리이까. 싫은 것을 강인하고 그런 것을 어이 견디리이까.”

공이 말이 없다가,

“어찌하든 밤이 깊었으니 들어가 자라.”

생(生)이 사례하고 이후로는 주야 오니, 공과 소저가 민망하여 아무리 간하여도 듣지 아니하더니, 윤공이 알고 불러 대책하고 응주궁을 떠나지 못하게 하나, 산 사람을 동여 두지 못하고, 날마다 최 씨에게 가니 응주 어찌 모르리오. 부마 ㉠ 내당에 들어간 때 응주 가로되,

“내 비록 용렬하나 임금의 딸이요, 빙례로 부마의 아내가 되었거늘 업수가 여겨 천대하기 심하도다. 최 씨를 얻어 고흥(蠱惑)하였으되 태부(太夫)는 두 아내 두는 법이 없거늘, 부마 어찌 두 아내 있으리오. 최홍일은 어떠한 사람이완대 부마에게 재취를 주어 주상과 첩을 업수가 여김이 심하뇨.”

지경이 정색하여 가로되,

[B] “내 할 말을 응주 하시느도다. 일국에 도령이 가득하거늘, 이미 얻은 사람을 내 어찌 조강지처를 버리고 부귀를 탐하여 응주와 화락하리오. 응주 만일 최 씨를 청하여 한 집에서 화목하기를 황영(皇英)*을 본받을진대, 최 씨와 같이 공경하고 화락하려니와, 투기하여 나를 원망한즉 평생 박명을 면치 못하리로다.”

- 작자 미상, 「윤지경전」 -

- * 포독불인: 사납고 독살스러우며 어질지 못함.
- * 친영: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직접 맞이함.
- * 포숙: 중국 춘추 시대 제나라의 대부. 친구인 관중을 환공에게 천거해서 승상이 되게 했음.
- * 신후경: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담긴 중국 원나라 때의 「교홍전」의 남자 주인공.
- * 빙부: 장인.
- * 체결: 엮어서 맺음.
- * 황영: 아황과 여영은 자매지간으로, 순임금에게 시집을 가서 화목하게 지냄.

36.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연화는 지경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경을 만나지 않았다.
- ② 응주는 지경이 연화를 만나는 것을 알아채고는 임금을 원망하고 있다.
- ③ 지경은 응주를 만나보고는 박 귀인과 달리 포독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 ④ 최홍일은 임금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성내에서 서문 밖으로 이사를 했다.
- ⑤ 지경의 부친은 연화와의 만남을 막기 위해 지경이 응주궁을 떠나지 못하게 했다.

37.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근거로 설득하고 [B]는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비판하고 있다.
- ② [A]와 달리 [B]는 상대방에게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상대방에게 빠른 해결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고사(古事)를 근거로 상대방의 특정 행동을 유도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상황과 부정적 상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지경이 연화를 만나서 반가움과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② ㉡은 지경이 응주와의 혼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임금이 응주의 부탁을 받고 지경을 벌하기 위해 만든 공간이다.
- ④ ㉣은 지경이 응주를 만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공간이다.
- ⑤ ㉤은 부마와 응주가 대화를 나누면서 갈등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윤지경전은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허구와 사실을 적절히 조화시켰다. 역사적 실존 인물인 종종, 귀인 박 씨, 복성군 등이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데, 이런 방식은 작품의 사실감을 높여 준다. 또한 권력을 내세워 위력으로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는 인물과 신의를 지키려는 인물의 갈등이 드러난다. 그 과정에서 왕의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의 쟁취를 위해 고난을 무릅쓰는 남자 주인공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지경이 연화를 만나기 위해 월장하는 행동은 연화에 대한 사랑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왕의 권위에도 굴하지 않고 사랑의 쟁취를 통해 가문의 번영을 이루려는 지경을 통해 새로운 인간상을 보여 준다.
- ③ 최홍일과 지경의 대화 과정에서 귀인 박 씨와 복성군이란 역사적 실존 인물이 거론되어 작품의 사실감을 높여 준다.
- ④ 지경이 옹주와 화락하지 않고 혼례를 약속한 연인을 버리지 않는 태도에서 신의를 지키려는 인물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이미 혼례를 약속한 지경에게 위력으로 옹주와 혼례를 시킨 임금은 권력을 내세워 자신의 입장만을 강요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40~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상에서 우주 공간에 있는 미확인 인공위성을 관측하는 작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공위성의 형상을 통해 인공위성의 기능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인공위성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SLR(Satellite LASER Ranging) 장비가 쓰이며, 인공위성의 형상을 파악하는 데에는 적응광학(Adaptive Optics) 장비가 쓰인다.

SLR 장비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장비로서 망원경, 초정밀시계, 레이저 송수신부 등으로 구성된다.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망원경을 인공위성으로 향하게 한 다음, 레이저 송신부에서 레이저를 쏜다. 그 레이저가 인공위성에 반사되어 수신부로 돌아오면 초정밀시계로 레이저의 왕복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인공위성과의 거리를 계산한다. 거리는 속력에 시간을 곱한 것이므로, SLR 장비와 인공위성 간의 거리는 레이저의 속력 c (광속 상수)에 왕복 시간을 곱한 값을 2로 나누어 구한다. 예를 들어, 천구의 중앙을 지나는 인공위성에 반사되어 온 레이저의 왕복시간이 0.2초로 측정되었다면, SLR 장비와 인공위성의 거리는 $c \times 0.2\text{초} \times \frac{1}{2}$ 로 계산된다. 이렇게 구한 '거리'에 SLR 장비의 '위치 정보'와 망원경이 향하고 있는 '방향 정보'를 융합하여 인공위성의 위치를 구한다.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 ㉠ 인공위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오차가 있는 것이다. 이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대기로 인한 오차를 생각해야 한다. 빛은 매질의 밀도에 따라 속력과 파장이 달라진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A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눈 값을 'A매질의 굴절률'이라고 한다. 매질의 밀도가 클수록 빛의 속력은 느려지며 파장의 길이는 짧아진다. 레이저는 지구의 대기를 지나면서 속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레이저의 왕복 시간만으로 계산된 거리는 대기로 인한 오차를 보정하는 수학 모델인 대기 모델을 적용하여 수직적 오차를 보정해야 한다.

인공위성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SLR 장비를 사용했다면, 고배율 망원경으로는 그 형상을 관측할 수 있다. 그런데 고배율 망원경으로도 인공위성의 형상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배율 망원경에 맺힌 상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그 주원인은 대류권에서 발생하는 난류이다. 대기층의 하부인 대류권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공기들이 일정하지 않게 움직이면서 불규칙한 공기의 흐름인 난류가 만들어진다. 이 난류는 빛의 굴절에 영향을 준다. 난류를 통과하는 빛들은 방향과 속력이 제각각 달라진다.

파면은 특정한 시간에 파동의 위상이 같은 점을 연결한 가상의 면으로서,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해 수직이다. 파면이 평면인 빛을 평면파라 하고, 그 파면을 평면 파면이라 한다. 우주에서 지구로 오는 빛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굴절하게 되는데, 난류를 만나기 전의 빛의 파면은 여전히 평면에 ㉡ 가깝다. 그러나 대류권에서 난류를 만난 빛은 불규칙 굴절을 하여 그 방향이 제각각 달라진다. 그런데 파면은 빛의 진행 방향에 수직이므로, 이때의 빛의 파면은 평면이 아니게 된다. 이 빛을 왜곡파라 하고 그 파면을 왜곡 파면이라 한다. 이것이 ㉢ 별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이다.

인공위성에서 오는 빛은 대류권의 난류를 통과하며 왜곡파가 되므로, 망원경으로 관측된 인공위성의 상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적응광학 기술을 사용한다. 적응광학 장비는 망원경에 광선분배기, 파면 센서, 데이터처리기, 제어기, 형상가변반사경 등이 추가된다. 지상에 설치된 망원경에 대기권을 통과한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은 형상가변반사경을 거쳐 광선분배기로 입사된다. 입사된 빛은 광선분배기에 의해 접안부와 파면 센서로 나뉘어 보내진다.

파면 센서는 들어온 빛의 파면이 왜곡된 정도를 측정한다. 파면 센서는 CCD*에 여러 개의 볼록 렌즈가 격자처럼 결합된 것으로서, 빛은 볼록 렌즈를 통과하면서 CCD에 볼록 렌즈의 수만큼 상으로 맺히게 된다. 들어온 빛이 평면파라면 CCD의 각 격자의 중심에 상이 맺히는데, 들어온 빛이 왜곡파라면 빛이 지나온 대기의 특성이 반영되어 각 격자의 중심이 아닌 곳에 상이 맺히게 된다. 이때 중심에서 벗어난 방향과 정도를 분석하여 왜곡된 파면의 뒤틀린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된 정보는 데이터 처리기를 거쳐 분석되고, 제어기는 분석된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형상가변반사경으로 보낸다. 형상가변반사경은 휘어질 수 있는 거울의 뒤에 구동기가

빠곡하게 달려 있는 것으로서, 각 구동기는 제어기가 보낸 전기적 신호에 따라 거울의 뒷면을 밀거나 당김으로써 거울을 변형 시키게 된다. 왜곡 파면은 이렇게 변형된 거울을 통해 보정되고, 우리 눈은 보정된 상을 볼 수 있게 되어 흔들림이 없어진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반복되기 때문에 인공위성의 형상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 CCD: 전하결합소자.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로 쓰인다.

40.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면 파면은 왜곡 파면과 달리 빛의 진행 방향에 대해 수직이다.
- ② SLR 장비는 망원경, 초정밀 시계, 레이저 송수신부 등으로 구성된다.
- ③ 대류권의 난류는 빛의 속력과 파장에 영향을 미쳐 파면을 왜곡시킨다.
- ④ 지상에서 인공위성의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응광학 장비가 쓰인다.
- ⑤ 인공위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하여 SLR 장비는 대기 모델을 적용한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기의 굴절률이 1보다 작으므로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멀리 있다.
- ② 대기의 굴절률이 1보다 크므로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가까이 있다.
- ③ 대기에서의 레이저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빠르므로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가까이 있다.
- ④ 대기에서의 레이저 파장은 진공에서보다 길므로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멀리 있다.
- ⑤ 대기에서의 레이저 파장은 진공에서보다 짧으므로 보정하기 전에 파악한 위치보다 더 멀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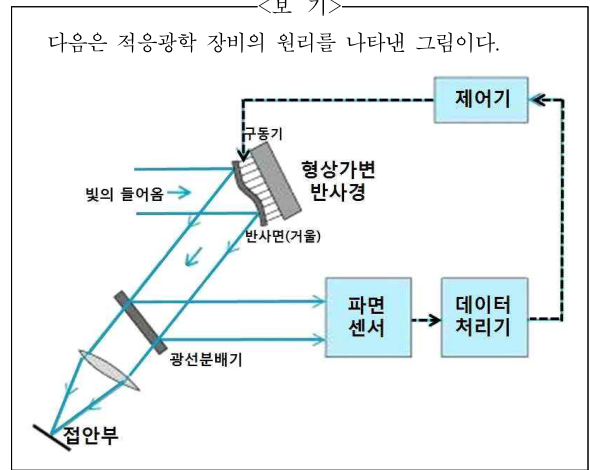
4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측자가 바람에 흔들리기 때문이다.
- ② 대류권의 공기들은 그 특성이 균질하기 때문이다.
- ③ 빛의 동일 위상을 연결한 선이 평면이기 때문이다.
- ④ 빛이 거쳐 온 난류의 굴절률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 ⑤ 대기의 굴절률이 달라져도 빛의 파면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43. ㉢의 문맥적 의미가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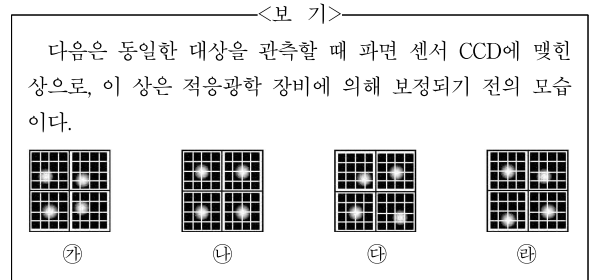
- ①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가깝다.
- ② 수형이와 만수는 가까운 친구이다.
- ③ 그 사람은 행동이 어린이에 가깝다.
- ④ 그들은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예정이다.
- ⑤ 주말에 가까운 친척의 결혼식에 다녀왔다.

4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형상가변반사경은 휘어질 수 있는 거울로 구성되어 있다.
- ② 광선분배기는 빛을 접안부와 파면 센서로 나누어 보내 준다.
- ③ 파면 센서는 여러 개의 볼록 렌즈와 CCD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④ 데이터처리기에서는 파면 센서의 정보를 조합하여 보정된 상을 보낸다.
- ⑤ 제어기는 데이터처리기의 정보를 받아 구동기에 전기적 신호를 보낸다.

4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태가 지속된다면 파면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와 달리 ㉢는 평면파가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 주겠군.
- ③ ㉡에서 ㉣로 달라진다면 빛의 파면이 바뀐 것이겠군.
- ④ ㉣는 ㉢에 비해 파면이 뒤틀린 정도가 심하겠군.
- ⑤ ㉣와 달리 ㉣는 왜곡파가 들어오고 있음을 보여 주겠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